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numbers 제 87호

2021. 03.12

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쓰레기와 플라스틱 관련 환경 통계]
   -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으로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유튜버에 대한 인식]
   -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우리나라 40대 자산 리포트]
   -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현대인,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으로 '미세 플라스틱' 먹고 있다!

2019년 3월,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는 문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South Korea's plastic problem is a literal trash fire)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경북 의성의 이른바 쓰레기 산을 집중 조명하면서 한국의 쓰레기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루었다.

경북 의성군의 한 농촌 마을에는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섬유 폐목재 등 19만 2,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축구경기장 2배 넘는 면적에, 3층 건물 높이(15m)까지 쌓여 있었다.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1,020톤)의 188배가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면서 만들어진 산이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수도권에서 더 심각하다.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는 4년 후인 2025년에 종료된다. 그러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데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더 이상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만약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각 가정과 마을은 쓰레기 대란을 겪을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그것을 매립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 인간은 자신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쓰레기의 역습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제 87호는 쓰레기 문제와 함께 날로 심각해져 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다룬다. 사람 한 명이 음식물을 통해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5g 즉, 신용카드 1장 꼴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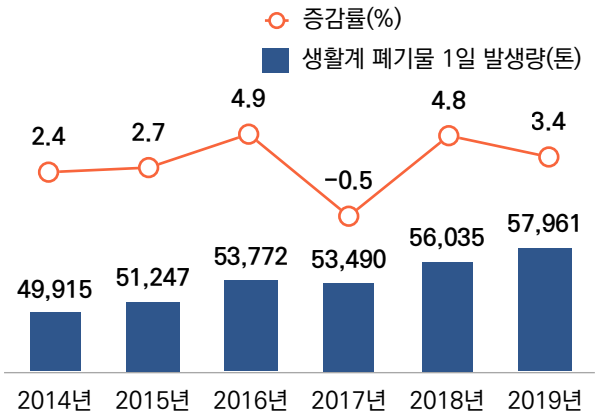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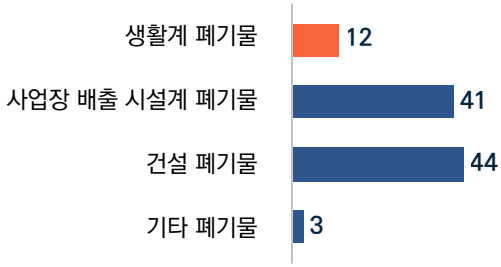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 **'1일 평균 약 58,000톤!'**

- 2019년에 1일 평균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57,961톤이었다. '생활계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6%나 증가했다.
(생활계 폐기물은 가정 생활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을 합친 것을 말함).
- 전체 폐기물에서 생활계 폐기물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나머지 88%는 산업 폐기물(사업장 배출 시설, 건설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생활계 폐기물 1일 평균 발생량



[그림]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20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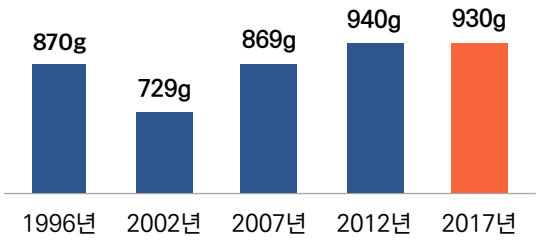


*자료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20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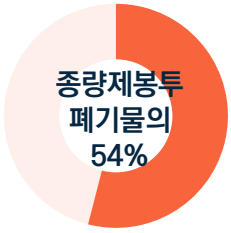
●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 거의 1kg에 육박

- 환경부에서 매 5년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평균 930g인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분리 배출 되었다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건전지 등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 있어 폐기된 경우가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54%를 차지했다.

[그림] 년도별 국민 1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양 (g)



[그림] 분리 배출이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 버려지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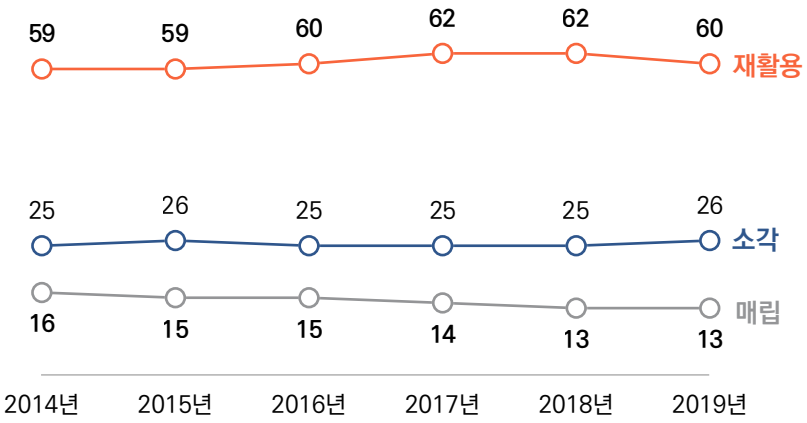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환경부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1인 하루 배출량 929.9g", 2018.03.30.(전국 4,380개 지점의 종량제 봉투를 계절마다 1회씩 조사, 20016.09~2017.07)

● 생활계 폐기물의 재활용률 60%

- 2019년도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율은 60%이며, 소각이 26%, 매립이 13%로 각각 나타났다.
- 생활계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림]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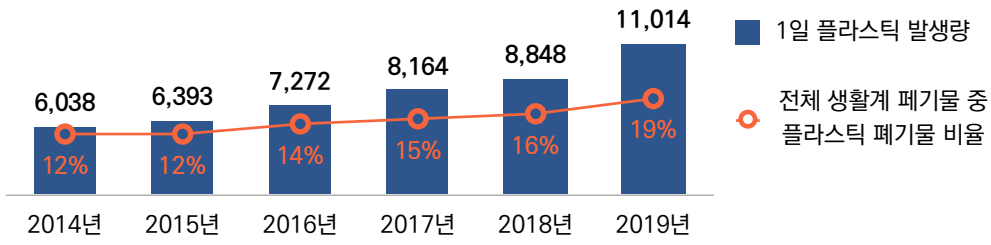
*자료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2020.12.31

2

환경 오염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은 5년 사이 82% 증가!

- 폐기물 가운데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즉 합성수지이다. 합성수지는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을 하면 독성물질과 이산화탄소를 연기로 내뿜어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킨다.
-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마다 증가해서 2014년에 6,038톤이었는데, 2019년에는 11,014톤으로 5년 사이에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무려 24%나 증가했는데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전체 생활계 폐기물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서 2014년에 12%의 비중이었는데 2019년에는 19%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그림] 생활계 폐기물 중 합성수지(플라스틱) 폐기물 1일 발생량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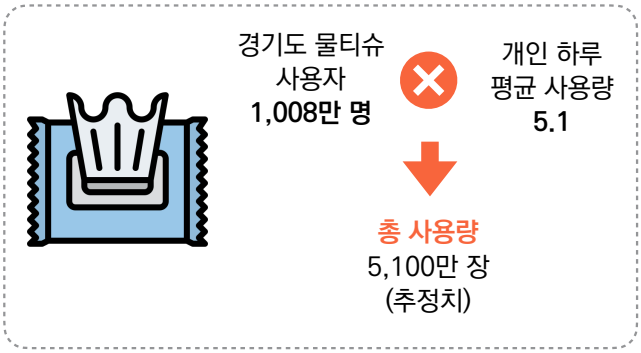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202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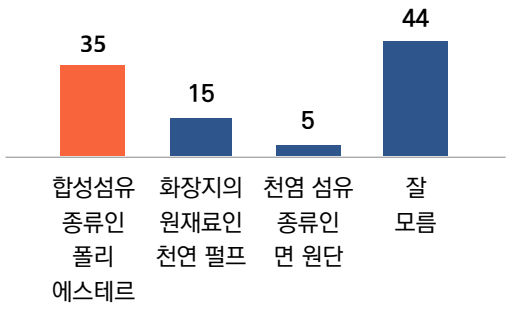
● 1회용 물티슈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 35%에 지나지 않아!

-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물티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기도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5.1장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도민 전체 총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5,100만 장으로 추정되는 양이다.
- 참고로 이를 우리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 1억 9,600만 장이 되는데 한 장씩(17cm 기준) 나열하면 약 33,320㎞가량으로, 경부고속도로(415㎞)를 4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한다.
- 그런데 1회용 물티슈의 대다수는 펄프로 만드는 화장지와 달리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비율은 경기도민의 경우 35%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물티슈 사용량



[그림] 물티슈 원재료 인식



*자료 출처 : 경기도,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보도자료, 2021.1.31.(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전화조사, 2021.1.14.~1.15), http://www.ibsnews.kr/news/62507

● 플라스틱 썩는 데 500년 이상 걸려!

- 1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병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00년이상 걸린다. 사실상 플라스틱류는 거의 썩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 한편 물티슈는 100년 이상, 나무젓가락은 20년이고 종이로 만들어진 우유팩은 5년이 걸린다.
- 그러므로 플라스틱이 가장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이다.

[그림] 일회용품 썩는 데 걸리는 시간

우유팩 5년 | **나무젓가락** 20년 | **물티슈**** 100년 이상 | **일회용 비닐봉투** 500년 이상 | **플라스틱 병** 50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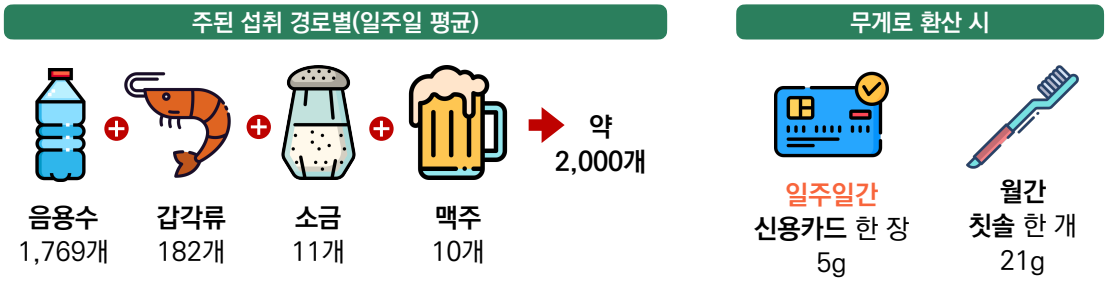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일회용 비닐봉투 썩는데 500년?, 2019.02.19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58500),

**자료 출처 : 경기도, '경기도민 76%, 플라스틱 원재료 물티슈 일회용품 규제 찬성' 보도자료, 2021.1.31.(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전화조사, 2021.1.14.~1.15), http://www.ibsnews.kr/news/62507

● 사람 한 명이 음식물을 통해 먹는 미세플라스틱, '일주일에 신용카드 1장 꼴로 섭취'

-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나도 모르게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이 바다에 쌓이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바다 동물이 먹게 되고, 그 바다 동물을 사람이 먹으면 저절로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 2019년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병으로 음료를 마시면서 1주 평균 1,769개 조각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갑각류를 통해서 182개 조각, 소금으로 11개 조각, 맥주로 10개 조각 등 1주일에 약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한다고 한다.
- 이렇게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5g) 분량이며 월간으로 하면 칫솔 한 개(21g) 분량이라고 한다.

[그림] 1인당 섭취 미세플라스틱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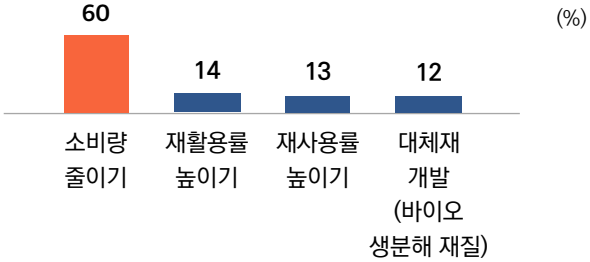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연합뉴스, '1인당 섭취 미세플라스틱, 매주 신용카드 1장 분량, 2019.06.12(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167400009, 원자료는 세계자연기금임)

3

플라스틱 소비량, '줄여야 한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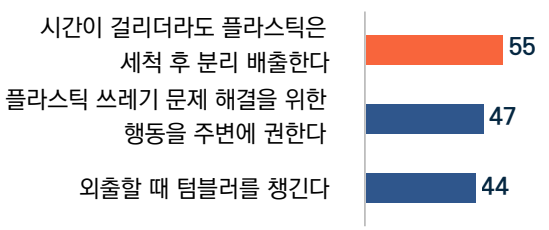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은 플라스틱은 발생하면 이미 그 자체로 환경오염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60%), 재활용률 높이기와 재사용률 높이기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4%와 13%로 낮았다.
- 20~30세대 가운데는 커피숍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 소비를 회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였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분리 배출'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55%). 이들은 자신만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행동을 권하는' 적극성을 보였다(47%).

[그림]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위한 해결책(1순위, 상위 4개)



*자료 출처 : '그린피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해결 방안 인식 조사' 2019. 4. 20(전국 일반 국민 1,010명)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5747/blog-plastic-what-are-the-demands-in-the-plastic-crisis/)

[그림] 2030세대의 플라스틱 쓰레기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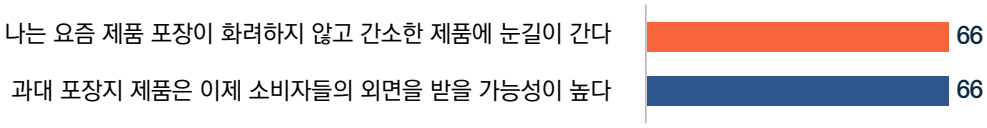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30세대 절반 환경 문제 민감한 '에코워리어'', 2020.10.20(20-39세 505명, 온라인 조사, 2020.10.14) (https://www.chosun.com/special/future100/fu_general/2020/10/20/H5WAIDYJZBEKVASTHI4CFZ7F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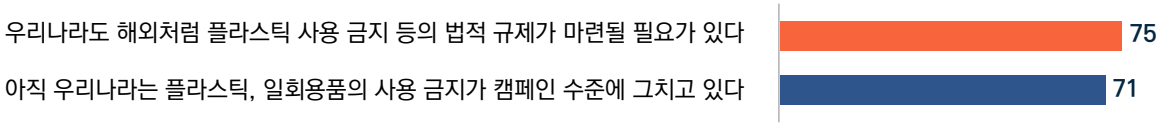
●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적 규제 필요’ 75%

-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 이전에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은 ‘포장이 화려하지 않고 간소한 제품에 눈길이 간다’(66%)고 하며 ‘과대 포장지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66%)고 응답했다. 쓰레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응답이다.
- 특히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5%나 되었으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71%)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제품 포장에 대한 의식 (%)



[그림]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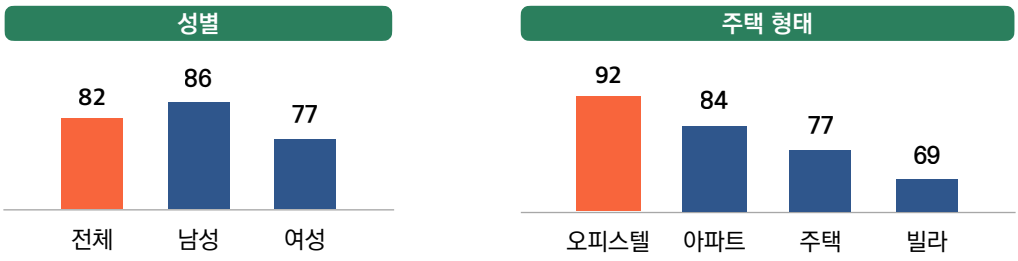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환경보호 인식 및 호텔 어메니티 폐지 이슈 관련 조사’ 2019. 12.04(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1.13.~11.18)

4

우리나라 사람, 쓰레기 분리 수거 ‘잘하고 있다’ 82%

-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에 대해 무려 82%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 ‘여성’(77%)보다 ‘남성’(86%)이 더 잘하고 있고, ‘오피스텔’ 거주자가 ‘잘 한다’는 비율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빌라’ 거주자가 69%로 가장 낮았다.

[그림] 쓰레기 분리 실천 정도(‘잘함’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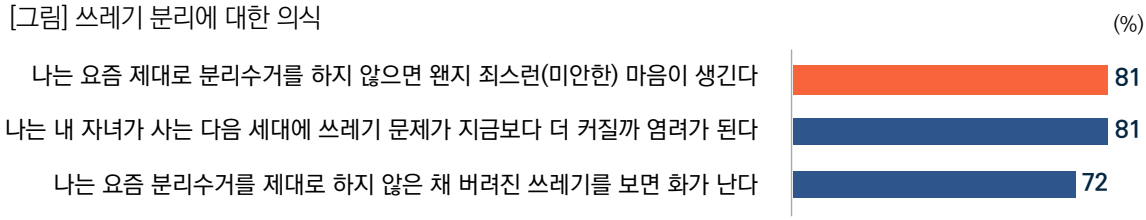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생활 속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조사’ 2019. 12. 4(전국 만20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1.6.~11.10)

● 쓰레기 분리,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감' 81%

-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가 시민으로서 생활 준칙을 넘어서 '도덕적 책임'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분리 수거를 하지 않으면 죄스런/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81%)이며,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를 보면 화가 난다'(72%)고 한다.
-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 쓰레기 문제가 지금보다 더 커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비율도 10명 가운데 8명(81%)이나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쓰레기 분리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쓰레기 분리에 대한 의식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 '환경보호 인식 및 호텔 어메니티 폐지 이슈 관련 조사' 2019. 12.04(전국 만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1.13.~11.18)

5

올바른 분리 수거 방법의 지속적 홍보 필요,
'플라스틱 배출 시 상표 라벨 미제거 62%'

- 쓰레기 분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택배 상자 버릴 때 테이프나 운송장 미제거'(28%), '견과류, 파인애플 껍질의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28%), '우유팩을 씻지 않고 배출'(18%), '깨진 유리를 신문지에 싸지 않고 배출'(24%) 등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생수병 등 플라스틱 배출시 라벨 미제거 배출'(62%), '수박, 감 등 과일 씨앗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51%),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45%) 등과 같은 잘못된 분리 배출 행동을 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 전체적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 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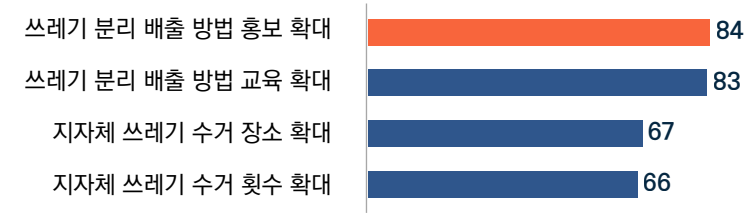
[그림] 잘못된 쓰레기 분리 배출 행동 유형('그렇다' 비율)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생활 속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조사' 2019. 12. 4(전국 만20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1.6.~11.10)

● 국민의 대부분,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 홍보 확대해야!

- 쓰레기 분리 배출 개선 사항에 대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홍보 확대'는 84%, '교육 확대' 83%로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그 외에도 '쓰레기 분리 수거 횟수 확대'(66%)와 '쓰레기 수거 장소 확대'(67%)도 3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응답했다.

[그림] 쓰레기 분리 배출 개선 사항(중복 응답) (%)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생활 속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조사' 2019. 12. 4(전국 만20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19.11.6.~11.10)

시사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쓰레기가 증가한 것은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비가 늘면서 상품의 포장재가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이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쓰레기를 늘리고 있다. 이전에는 시장에서 자연 재료를 구입하여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제조사가 상품화한 식품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구입해서 먹는 것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로는 택배가 증가하면서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가 급증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상품 보호 노력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과대 포장을 시행하는 것도 포장재 쓰레기를 크게 늘렸다. 넷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및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여 각 가정마다 종이, 비닐백,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의 합성수지류 쓰레기가 급증했다.

이처럼 인간의 소비 욕구와 편리성 추구 욕구가 소비를 늘리고 있다. 상품 소비 후에 배출되는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 수거를 잘 해야 하지만, 이는 사후적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소비를 줄여야 쓰레기도 줄어 든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 가기 위해 필요한 욕구가 있다. 사람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비를 해야 한다. 자급자족 사회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며 다소 부족한 것은 물물교환을 통해 충족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소비가 있어야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내어 놓고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사람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지만 소비하고 나면 더 큰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큰 소비를 하는 소비의 악순환을 겪는다.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를 상품이 차지하였다. 소비 욕구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소비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삶의 만족을 느껴야 할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는 백화점, 쇼핑센터, 스포츠 경기장이 소비 사회의 성전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영원한 궁극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인은 이러한 소비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한다. 거대한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거 자급자족 사회로 돌아가거나 현대문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미국의 아미시 종교 공동체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물질적 만족과 세속적 가치를 제1의 가치로 삼는 현대 소비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현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전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교회도 이제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인 환경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한 교회의 사례를 소개한다.

시사점

[광주 다일교회의 환경 운동 사례]

- 주보를 재생 용지로 활용
- 환경 소모임 / 리필스테이션 준비 및 자원순환센터 활동
- 아동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실시(생활 환경, 도시 환경, 지구 환경 주제로 각 10주간)
- 사순절 탄소 금식 : 재생용지로 주보를 만들게 된 계기로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을 위해 모임 구성
- 종이 금식 :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종이 주보를 만들지 않음으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주보 없는 예배로 드림
- 주일 공동 식사의 '빈 그릇 운동' : 음식 쓰레기 줄이기
- 에너지 절약 : 여름 반팔, 겨울 내복 등 냉난방의 최소화 운동
- 식당, 북카페에서 일회용 사용하지 않기
- 분리 수거를 위한 구별된 쓰레기통 사용
- 아나바다 바자회 :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가을 마을 장터를 마련하고 '아나바다고물'을 중심으로 한 바자를 엽니다.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교육, 홍보와 함께 하여 생태적 생활 환경에 대한 취지를 나누는 계기가 됨
- 초록장터: 광주 근교 화순 담양 지역의 5개 농촌 교회의 친환경 생산물을 판매하는 장터. 격주로 열리는 장터로 '농-도 생명망 잇기'의 좋은 사례가 됨. 농촌 교회에게는 좋은 먹거리 생산에 격려가 되고 소비자인 도시 교회는 환경 선교에 참여하는 실천이 됨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2.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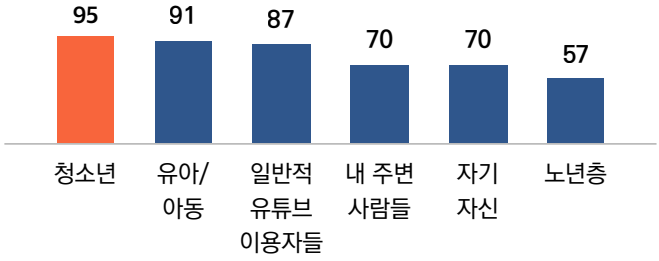
1

유튜버에 대한 인식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초등학생' 95%**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유튜브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이용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초등학생'(95%)인 것으로 나 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유아/아동' 91%, '일반적 유튜브 이용자들' 87% 등 순이었다. 이는 보고 듣는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성장기 청소년과 어린 아동들에게 유튜브가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유튜버가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크다' 응답률(이용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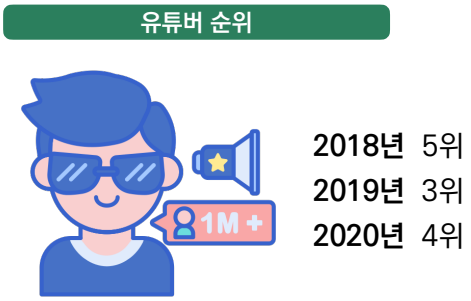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
(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영향력 크다'는 '매우+약간', '우려스럽다'는 '매우+약간', '긍정적'은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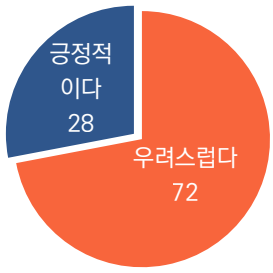
●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 차지, 국민의 72%가 '우려스럽다'

- 이처럼 유튜버가 초등학생 영향력이 1위였지만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에 '유튜버'가 2018년 5위, 2019년 3위, 2020년 4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해 국민의 72%가 '우려스럽다'고 응답해 높은 우려감을 보였다.

[그림] 초등학생 희망 직업* (%)



[그림] 유튜버가 초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권에 오른 것에 대한 의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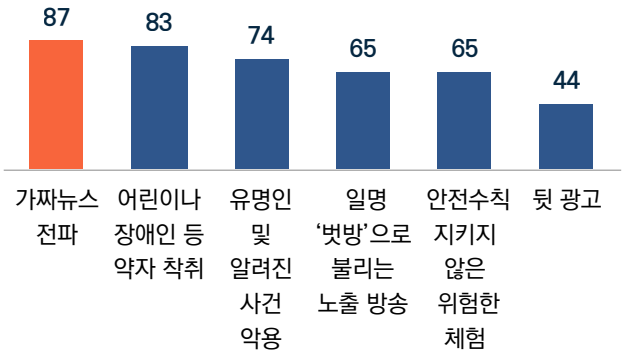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2020.2.24.(전국 초중 고 1,200개 학교 학생 23,223명, 온라인 조사, 2020.7.15.~10.15)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우려스럽다'는 '매우+약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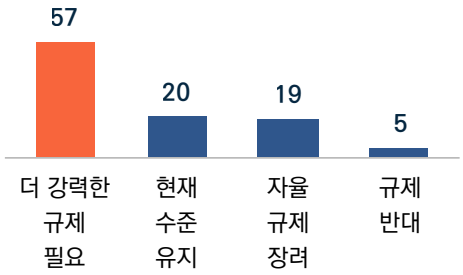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튜버 행동, '가짜뉴스 전파, 매우 심각하다' 87%

- 유튜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보고자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심각성을 질문했는데, '가짜뉴스 전파'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 이와 관련해서 유튜버 또는 채널에 대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57%)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유튜버 행동별 '매우 심각하다' 응답률 (%)



[그림] 유튜버와 유튜브 채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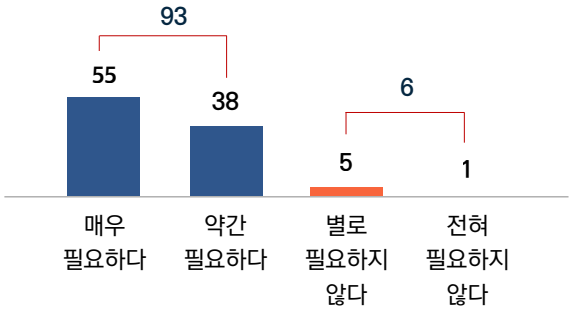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 국민의 절대 다수(93%), 유튜버 윤리 교육 '필요하다!'

- 이러한 성장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유튜버에 대한 윤리 의식이 필요한 것이 자명한데, 유튜버의 윤리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절대 다수(93%)가 '필요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현재 유튜브 현장에 윤리 의식 결여에 따른 문제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유튜버에게 윤리 교육의 필요성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이슈 7권 1호,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2021.2.23.(전국 20~60대, 유튜브 이용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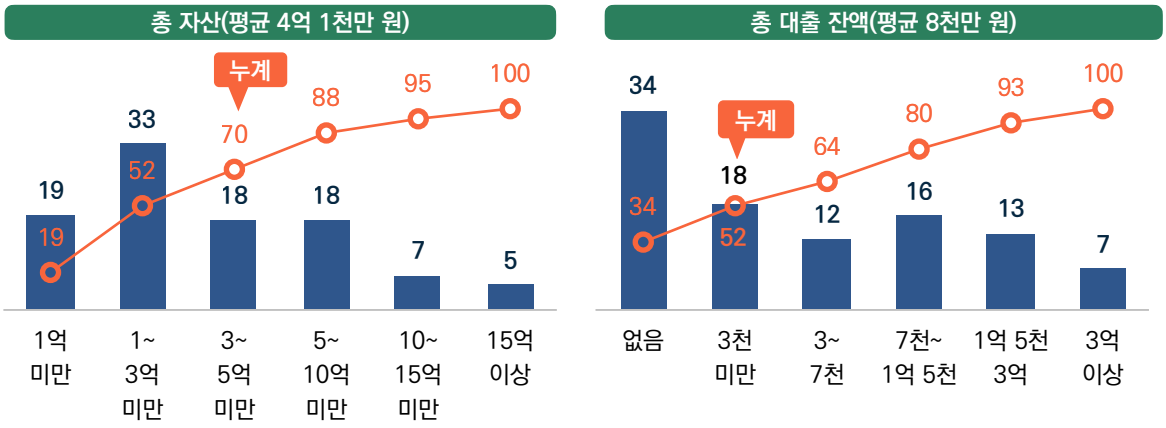
1

우리나라 40대 자산 리포트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40대, '총 자산 평균 4억 천만 원!

-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서 40대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자산 관련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 및 4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평균 보유 자산은 '4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3억 미만'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0억 이상'은 12%로 보유 자산의 격차가 컸다.
- 총 자산 4억 1천만 원 중 평균 대출 잔액은 8천만 원으로 대출 비중은 20% 정도인데, 3가구 중 2가구(66%)는 현재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0대 총 자산 및 대출 비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거주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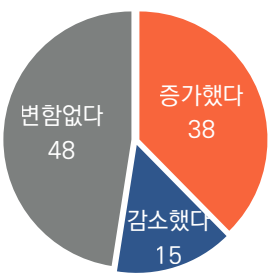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2021.02.08 (서울 및 4개 광역시 거주 40대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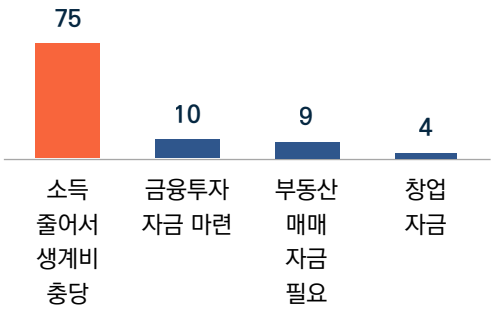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40대 대출 '증가했다' 38% 〉 '감소했다' 15%

- 현재 40대 대출자 중 코로나19 이후 대출 증감에 대해 '증가했다' 38%, '감소했다' 15%로 증가한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대출 증가 이유로 '소득이 줄어서 생계비 충당을 위해'가 75%로 가장 높아,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인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40대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 19 이후 대출 증감(대출자 대상)



[그림] 대출 늘어난 이유('대출 증가했다' 응답자)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2021.02.08 (서울 및 4개 광역시 거주 40대 소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19

113주년 여성의날…"코로나 속 여성 고용 줄고 극단 선택 늘어"
연합뉴스_2021.03.08.

"코로나19 탓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이미지 나빠졌다"
연합뉴스_2021.03.09.

국민 66.3% "코로나로 한국사회 위기"…6개월새 17.4%p 감소
연합뉴스_2021.03.08.

학교 못 가는 아이들…점점 커지는 '집콕 부작용'
SBS_2021.03.11.

코로나19가 바꾼 주거공간 트렌드, '취미·휴식' 중요!
직방_2021.03.08

사회 일반

"청년 여성 셋 중 한 명, 지난 1년간 자살충동 한 번 이상 느껴"
연합뉴스_2021.03.11.

성 격차 열등생인 한국, 성 평등은 우등생?
한겨레_2021.03.07.

직장인 64% “번아웃 증후군 겪어”…30대 75%가 경험
동아일보_2021.03.08.

1월 육아·가사 전담 남성 19.4만명…1년새 30% 급증
연합뉴스_2021.03.10.

경제

“매출 95% 줄었는데”… ‘착한 임대인’은 없었다
머니S_2021.03.06.

세계에서 1위하는 한국 제품 69개…국가 순위 11위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1.03.07.

미성년자도 '영끌' 광풍?…주식계좌 2년새 3배 폭증
연합뉴스_2021.03.08.

전경련 "여성 경제활동 활발한 나라가 미래 노인부양 부담 적다"
연합뉴스_2021.03.0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타

"북한, 제재·코로나로 소득·내수 25%↓…식량난 가능성 작아"
연합뉴스_2021.03.10.

OTT, 판 커졌다
동아일보_2021.03.09.

대선 1년전 지지율 1위, 과연 청와대 입성했을까?
동아일보_2021.03.09.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새에덴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횃불, (사)사단법인 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롱,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의숙,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중앙성결교회, (주)영동개발

특별 후원 | 안산제일교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 • 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 • 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제 56호 | 우후죽순 'ㅇㅇ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84호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다'

제 82호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제 83호 | '기독 청년 4명 중 1명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 |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 65%

제 84호 |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 일반 국민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다' 13% →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매주 예배하는 미국인, 미국 내 모든 집단을 통틀어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

제 85호 | 코로나 이후 새로운 트렌드, '집콕' |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극단적 이상 기후' | 2019년 종교인 월 평균 소득 155만 원, '같은 해 최저임금보다 적어'

제 86호 | "코치님이 나무배트로 허벅지 안쪽을 때렸는데 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초등학교 5학년 소프트볼 선수) | 초등학생 장래 희망 직업, 코로나19 이후 '의사', 4위에서 2위로 상승 | 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 '2019년보다 13% 줄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 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횃불회